



신라 眞平王 시기 백제 관계와 薯童 說話

– 역사의 충돌과 설화의 화해

The Relationship with Baekje and the Story of Seodong during the Reign of King Jinpyeong of Silla – The clash of History and The Reconciliation of a Story –

저자 (Authors)	이장웅 Lee, Jang-woong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44), 2018.12, 221–263 (43 pages) SILLASAHAKPO , (44), 2018.12, 221–263 (43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535
APA Style	이장웅 (2018). 신라 眞平王 시기 백제 관계와 薯童 說話. 신라사학보, (44), 221–26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4 10:2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眞平王 시기 백제 관계와 薯童 說話

－ 역사의 충돌과 설화의 화해－

이장웅*

I. 머리말	III. 신라·백제 관계에서 역사의
II. 신라 진평왕 시기 百濟와의	충돌과 설화의 화해
전쟁과 설화	IV. 마무리

【국문초록】

신라 진평왕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 이데올로기의 완비를 통해 왕권을 안정시켰고, 이어지는 선덕여왕의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삼국통합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이는 삼국을 통합한 신라의 입장에서 남겨진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이며, 그 이면의 자료를 통해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

본고는 신라 진평왕 시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많이 남겨진 《삼국사기》 열전과 《삼국유사》 속의 인물 설화 기록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당시 백제와의 관계를 성왕 시기부터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서, 신라 진평왕과 백제 무왕 시기에 벌어진 역사의 충돌 상황과 설화 속의 화해를 키워드로 삼아 당시의 역사상을 다른 측면에서 검토

*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新羅史學報》 38, 2016 ; 《신화 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17 ; <百濟 法華信仰과 占察懺悔> 《韓國古代史研究》 92, 2018.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진평왕 시기의 신라는 백제 무왕과 사활을 건 전쟁을 수행하면서 왕권의 안정보다는 국가적 위기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처절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점이 이후 신라가 당나라를 어떻게든 끌어들이어 삼국을 통합하려 했던 의지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백제의 입장에서 많이 분석되었던 서동 설화에 대하여, 신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서동 설화는 본래 백제 무왕 시기에 마한의 무강왕 신화를 받아들여 백제 신화 체계에 들어온 것이지만, 신라의 백제 통합 이후에는 백제인을 회유하기 위한 사상 통합의 일환으로, 신라의 입장에서 변용된 설화적 진실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신라 진평왕 시기에 백제 무왕과는 실제 역사적으로 치열한 충돌의 연속이었지만, 설화 속에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화해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진평왕, 무왕, 서동 설화, 신라, 백제, 아막성, 가잠성

I. 머리말

신라 眞平王(재위 579~632년)은 眞興王의 태자였던 銅輪의 아들로, 동륜이 일찍 죽자 동생인 舍輪이 眞智王으로 즉위했다가 政亂荒嬖하다는 이유로 폐위되고 나서 즉위하였다. 그는 10대 초반의 나이에 즉위하여 54년의 재위기간 동안 관제 정비와 정치 이데올로기 완비 및 성골 관념을 통해 왕권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진평왕 시기에는 그동안 세력 간의 갈등이 일단락 되면서 행정제도가 정비되어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

진평왕 3년(581)에는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位和府가, 5년(583)에

는 선박을 담당하는 船府署가, 6년(584)에는 貢賦를 담당하는 調府令과 車乘을 담당하는 乘府令이, 8년(586)에는 의례와 교육을 담당하는 禮部令이, 13년(591)에는 사신을 접대를 담당하는 領客府令이 설치되었다. 진평왕 45년(623)에는 兵部에 大監 2員을 두었고, 이듬해에는 侍衛府에 大監 6員, 賞賜署에 大正 1員과 大道署에 大正 1員을 두었다. 내정기구로는 진평왕 7년(585)에 大宮, 梁宮, 沙梁宮에 각각 私臣을 배치하였고, 44년(622)에는 內省私臣을 설치하여 三宮을 兼掌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정관부의 정비와 함께 진평왕 5년에는 誓幢, 13년에는 四千幢, 20년에는 河西州弓尺, 26년에는 軍師幢, 27년에는 急幢, 47년에는 郎幢 등 새로운 성격의 군단도 조직되었다.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진평왕은 원년(579)에 天帝로부터 왕권의 상징물인 天賜玉帶를 받고, 왕이 친히 제사하는 神宮인 郊廟와 大祀를 행할 때에 항상 이를 착용하였으며, 內帝釋宮(天柱寺)을 창건하였다.²⁾ 이 진평왕의 天賜玉帶는 토착신앙의 天命思想을 불교의 帝釋天 형식을 빌어 표현한 설화로, 왕권의 정통성을 天神에게서 승인 받았음을 상징한다.³⁾ 《觀世音應驗記》에는 百濟 武廣王(武王) 시기

1) 李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 《韓國史研究》 52, 1986; 金瑛河,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試論> 《泰東古典研究》 4, 1988, 17쪽; 李基白, <新羅專制政治의 成立>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朱甫暉,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중앙통치조직>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2) 《三國遺事》 卷1, 紀異1, 天賜玉帶조, “第二十六白淨王 諡眞平大王 金氏 大建十一年己亥八月即位 身長十一尺 駕幸內帝釋宮[亦名天柱寺 王之所創] 踏石梯三石並折 王謂左右曰 不動此石 以示後來 卽城中五不動石之一也 卽位元年 有天使降於殿庭 謂王曰 上皇命我 傳賜玉帶 王親奉跪受 然後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辛鍾遠, <新羅 祀典의 成立과 意義>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78~80쪽에서는 郊廟大祀를 天神과 연결된 奈勿王을 모신 神宮인 郊廟와 大祀로 파악하였다.

(재위 600~641년)의 익산 지역에 帝釋精舍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⁴⁾ 토착 천신의 불교적 변용이라 할 수 있는 帝釋信仰은 같은 시기의 신라와 백제에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평왕 시기에는 불교를 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하여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니, 신라 왕실을 석가족에 비견하면서 독자적인 신성성과 聖骨이라는 혈연 관념을 내세웠다. 왕족은 자신들의 이름에 석가족의 이름을 차용하면서 찰제리로 인식하였다.⁵⁾ 진평왕의 이름인 ‘白淨’은 《修行本起經》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고,⁶⁾ 백정의 두 동생인 백반과 국반은 《長阿含經》, 《大智度論》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6세기 초반에 梁의 僧祐(445~518)가 석가의 생애를 종합하여 편찬한 《釋迦譜》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⁷⁾

진평왕의 딸 ‘善德’의 명칭에 대해서는 《大方等無想經》에서 석가모니에 의해 전륜성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은 善德婆羅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⁸⁾ 《석가보》에서 “현재 시방의 모든 부처와

3) 姜英卿, <新羅 眞平王代 巫佛關係에 대한 一考察> 《淑大史論》 13, 1989; 신종원, <圓光과 眞平王代の 占察法會>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2, 1991; 李晶淑, <眞平王代 王權強化와 帝釋信仰> 《新羅文化》 16, 1999; 안지원, <신라 眞平王代 帝釋信仰과 왕권> 《歷史教育》 63, 1997; 김재경, 《신라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民族社, 2007, 68쪽.

4) 《觀世音應驗記》, “百濟武廣王 遷都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 天大雷雨 遂災帝釋精舍 佛堂七級浮圖 乃至廊房 一皆消盡”

5) 金哲垞,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下)> 《歷史學報》 2, 1952, 251~255쪽; 李基白, <新羅 初期 佛教와 貴族勢力> 《震檀學報》 40, 1975, 91쪽;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の 釋迦佛信仰> 《韓國學論叢》 10, 1988, 16~17쪽.

6) 高翊晋, 《韓國古代 佛教思想史》, 동국대 출판부, 1989, 159쪽.

7) 고현아, 《신라 진흥왕계 왕실의 구축과 정치 이념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16, 111~112쪽.

善德如來 등도 역시 53불의 명호를 들었기 때문에 시방세계에서 각각 성불하였다.”⁹⁾는 부분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신라 진평왕 시기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계의 완비를 통해 왕권을 강화시키고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대외관계도 안정시킨 후, 그를 이을 왕자를 얻지 못한 채 덕만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준 부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⁰⁾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백제 무왕과 사활을 건 전쟁을 수행하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 부분에¹¹⁾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고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신라 진평왕 시기 백제와의 관계를 진흥왕과 성왕 시기부터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신라 진평왕과 백제 무왕 시기에 벌어진 치열한 전쟁 상황과 함께, 이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의 서동 설화에 대하여, ‘역사의 충돌’과 ‘설화의 화해’라는 관점으로 당시의 역사상을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彌勒寺址 西塔 舍利奉安記> 발견 이후 서동 설화는 백제사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 관계의 성립 여부와 설화적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639년 당시 무왕비로 밝혀진 佐平 沙毛積德의 딸과 설화 속 선화공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진실의 해석 문제에 대하여, 백제 무왕 시기에 마한 정통성 계승을 내세우면서 익산을 別都로 중시하고 고조선~마한 계통의 무강왕 신화를 국가 신화로 수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한 바 있다.¹²⁾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라

8) 南東信, <慈藏의 佛教思想과 佛教治國策> 《한국사연구》 76, 1992, 29~30쪽.

9) 《釋迦譜》 卷6, 釋迦同三千佛緣譜6(出藥王藥上觀經), “現在十方諸佛善德如來等 亦得聞是五十三佛名故 於十方世界各得成佛”

10) 이정숙,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2012, 해안.

11) 김덕원, 《新羅中古政治史研究》, 景仁文化社, 2007, 165쪽.

진평왕 시기를 둘러싼 역사적·설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백제의 멸망 후 서동 설화가 신라의 입장에서 변용된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Ⅱ. 신라 진평왕 시기 百濟와의 전쟁과 설화

신라 진평왕 시기 百濟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이전 진흥왕 시기 백제 성왕과의 연합에 의한 한강 유역 진출과 신라의 배신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관산성 전투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은 매우 소략하므로 《일본서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보완 자료로 하여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1. 12년(551) 백제 聖明王이 몸소 군사 및 두 나라의 병사를 거느리고 [두 나라는 新羅·任那를 말한다] 高麗를 정벌하여 漢城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 진군하여 平壤을 토벌하였는데, 무릇 옛 땅 6군을 회복하였다.

A-2. 13년(552) 5월 戊辰 초하루 乙亥 百濟·加羅·安羅가 中部 德率 木笏 今敦·河內部 阿斯比多 등을 보내 아뢰었다. 高麗가 新羅와 화친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任那를 멸하려고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구원병을 청해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 ... 이 해에 百濟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新羅가 한성에 들어가 살았으니, 현재 新羅의 牛頭方·尼彌方이다.

A-3. 14년(553) 8월 辛卯 초하루 丁酉에 百濟가 上部 奈率 科野新羅, 下部 固德 汶休帶山 등을 보내 표를 올렸다. ... 올해 문득 들으니 新羅가 狛國(고려)과 함께 모의하여 ‘百濟와 任那가 자주 日本에 나

12) 이장웅,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 38, 2012.

아가니, 생각건대 군사를 빌려 우리나라(신라)를 치려는 듯하다. 이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나라의 패망은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日本의 군대가 떠나기 전에 安羅를 공격해 빼앗아 일본과의 통로를 끊자'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이와 같으니, 신 등이 이를 듣고 두려운 마음을 깊이 품었습니다. 바로 빠른 배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아뢰입니다. 천황께서 빨리 前軍과 後軍을 보내 서로 이어 와서 구원해주기를 원합니다.

A-4. 14년(553) 겨울 10월 庚寅 초하루 己酉 百濟의 왕자 餘昌[明王의 아들 威德王이다]이 나라 안의 모든 군대를 내어 高麗國을 향했다. ... 이 때 百濟는 高麗의 용사를 창으로 찢러 말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머리를 창끝에 찢러 들고 돌아와 군사들에게 보이니, 高麗軍 장수들의 분노가 더욱 심하였다. 이 때 百濟軍이 환호하는 소리에 천지가 찢어질 듯하였다. 다시 그 副將이 북을 치며 달려 나아가 高麗王을 東聖山 위에까지 쫓아가 물리쳤다.

A-5. 15년(554) 겨울 12월 百濟가 下部 杆率 汶斯干奴를 보내 표를 올려 말했다. 百濟王 臣 明과 安羅에 있는 倭臣들, 任那 여러 나라의 冑岐들은 아뢰입니다. 斯羅가 無道하여 천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狛(고려)과 마음을 함께 하여 바다 북쪽의 彌移居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신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有至臣 등을 보내 우리러 군사를 청해 斯羅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 明王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 사무쳤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구차히 살 수는 없다”라 하고 머리를 내밀어 참수당했다(《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B. 承聖 3년(554) 9월 백제 병사가 珎城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명과 말 8천 필을 빼앗아 갔다. 이보다 먼저 백제는 신라와 군사를 합하여 高麗를 치자고 하니 眞興이 말하기를, “나라의 興亡은 天에 달려 있는데, 만약 天이 高麗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감히 바라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을 高麗에 전하니 高麗는 그 말에 감동하여 신라와 通好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이를 원망하여 침략해 온 것이다(《三國遺事》 卷1, 紀異1, 眞興王).

신라와 백제는 551년에 연합하여 고구려를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뒤에서 살필 J의 《三國史記》 居柒夫傳에 의하면, 백제가 먼저 平壤을 공격하였고 신라는 竹嶺 바깥 高峴 이내의 10郡을 빼앗았다. A-1의 《일본서기》 欽明紀에서는 551년에 백제의 입장에서 聖王이 新羅·任那(가야)의 병사를 거느리고 高麗를 정벌하여 漢城의 땅을 차지하고 平壤을 토벌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A-2에 의하면, 이보다 불과 1년 후인 552년에 신라가 백제를 버리고 고려(고구려)와 화친하였음을 보여준다. B의 《三國遺事》 기록은 554년 이전(551~552년경으로 추정)에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신라가 백제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구려와 通好하였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A-2·3에 의하면,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화친에 대비하기 위하여 任那(가야),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먼저 불시에 침공하려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한강 유역 점령 이후 백제, 신라, 가야 사이에 형성되었던 고구려에 대한 共同戰線이 급격하게 분열되었으며, 이로 인해 백제가 고구려 및 신라와 두 戰線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가야 지역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백제는 기존 가야, 왜와의 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2 기록으로 보아 552년에 신라는 동맹국이었던 백제의 漢城 지역을 점령하여 牛頭方과 尼彌方을 설치하였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553년에는 이곳에 新州를 설치하여 阿淪 武力을 軍主로 삼으면서¹³⁾ 백제와 신라 사이의 동맹은 완전히 파기되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백제가 가야, 왜와 연결하여 신라를 침공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A-3에서 보듯이 신라는 고구려와 공모하여 安羅를 침공하여 가야와 왜의 연결을 차단하려 하였다. 백제는 신라와 고구

1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年(553),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淪武力爲軍主”

려의 동맹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으로 A-4에 보이는 553년 10월의 고구려에 대한 선제 공격을 단행한다. 성왕 말엽에 왕자로 있던 위덕왕 餘昌에 의해 주도된 이 고구려전에서 백제는 승리하였고, 이를 계기로 성왕은 왕녀를 신라에 보내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흥왕의 小妃가 되었을 뿐¹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고구려와 신라 지역을 모두 戰線으로 하는 상황 전개는 백제가 한강 유역과 가야 지역 중 한 지역을 선택하여 전력을 기울이게 만들었을 것이며, 여기서 백제 성왕은 새로 확보했던 한강 유역을 포기하고 가야 지역을 선택하면서 즉위 이래 최대 목표였던 대고구려전에서 대신라전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견해가 있다.¹⁵⁾

백제의 이 새로운 정책은 가야 지역을 둘러싼 신라와의 치열한 대립으로 이어졌으니, 그 시작이 바로 A-5에 보이는 관산성 전투와 성왕의 전사였다. 백제는 554년에 加耶 지역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신라의 管山城을 공격하였으나 대패하고 聖王까지 피살되면서 양국은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다. 이 《일본서기》 欽明紀 기록에서는 관산성 전투가 12월에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7월에¹⁶⁾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산성 패전은 백제-신라 동맹의 와해 이후 백제-가야-왜가 연합하여 신라-고구려 연합 전선에 대응했던 국제질서가 무너진 사건으로, 이로써 백제는 한강 유역의 상실과 함께 가야 지역까지 잃게 될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B의 기록은 威德王이 즉위하자마자 관산성 전투 2개월 후인 554년 9월에 벌어진 사건으로, 백제가 신라 瑠城(무주 일대)을 선제 공격하

1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年(553), “冬十月 娶百濟王女爲小妃”

15)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160쪽.

1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32年(554),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五十 夜至狗川 新羅伏兵發與戰 爲亂兵所害薨 諡曰聖”

여 승리한 전투이다. 이 진성 전투는 백제가 관산성 패전 후 성왕의 시신 처리 과정에서 신라와의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며, 《일본서기》에 관산성 전투가 12월로 기록된 것은 이때 시신이 수습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가 있다.¹⁷⁾ 554년 10월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熊川城 공격도 막아낸다.¹⁸⁾ 555년에는 위덕왕이 동생 惠를 왜에 보내 군사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¹⁹⁾ 이는 성왕의 전사 후 위덕왕 즉위 초의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후 백제 위덕왕(재위 554~598년)은 14년(567)까지 대내 체제 정비에 매진하였다. 562년까지 安羅와 大加耶를 포함한 加耶諸國이 신라에 계속 병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 많은 병력을 제공했던 가야제국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다만 위덕왕 8년(561)에 신라의 변경을 침략하였으나 신라병의 출격을 받아 패해 죽은 사람이 1천여 명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²⁰⁾ 이는 가야지역이 실질적으로 신라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대한 백제의 반발로 볼 수 있으나, 결국 이것이 좌절된 이후 가야제국은 완전히 멸망하여 신라의 영토가 되고 말았다.

백제 위덕왕은 체제 정비를 마무리한 567년 이후부터 남·북조와 등거리 외교를 맺고 백제 역사상 한 왕대에 가장 많은 중국과의 교섭을 가지게 된다. 22년(575)부터는 대외교섭도 재개한다.²¹⁾ 백제는 중국을

17) 김수태, <百濟 威德王의 정치와 외교> 《한국인물사연구》 2, 2004, 167쪽.

18)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元年(554), “冬十月 高句麗大舉兵來攻熊川城 敗衄而歸”

19)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6年(555) 春2月.

20)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8年(561), “秋七月 遣兵侵掠新羅邊境 羅兵出擊敗之 死者一千餘人”

21) 양기석, <위덕왕의 즉위와 집권세력의 변화> 《사비도읍기의 백제(百濟文化史大系研究叢書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통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 신라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당시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년)은 562년까지 大加耶(加羅)를 비롯한 加耶諸國을 모두 멸망시킨 후,²²⁾ 565년에는 下州의 治所를 完山州에서 大耶州로 이동시키면서,²³⁾ 그동안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백제 세력을 몰아내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신라는 진지왕(재위 576~579년)을 거쳐 진평왕(재위 579~632년) 초반까지 관제 정비를 마무리한다. 곧, 진평왕은 位和府(581년)·調府(584년)·禮部(586년) 등 행정 관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6년(584)에 建福으로의 改元과 함께 親政을 시작하였으며, 13년(591)까지 관제 정비를 일단락하면서 강력한 왕권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⁴⁾

백제는 45년간 재위했던 威德王이 598년에 죽고 70대의 노령인 동생 惠王이 즉위하였으나 599년에 죽었고, 아들 法王이 즉위하였으나²⁵⁾ 600년에 사망하고 武王(재위 600~641년)이 즉위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법왕의 아들로, 풍채가 훌륭하고 뜻이 호방하며 기상이 걸출하다고 기록하였다.²⁶⁾ 위덕왕, 혜왕, 법왕 시기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대립은 7세기에 무왕이 즉위하면서 고조되어, 660년 백제의 멸망 때까지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된다.

2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3年(562),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2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6年(565), “九月 廢完山州 置大耶州”

24) 朱甫噉, 1979, <新羅 中古의 地方統治組織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23, 26쪽.

25) 법왕 관련 최근 연구는 이장웅, <백제 法王의 정치와 불교>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참조.

26)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諱璋 法王之子 風儀英偉 志氣豪傑 法王卽位翌年薨 子嗣位”

《삼국사기》 등에 의하면, 백제 무왕은 재위 42년 동안 신라와 13회, 고구려와 1회의 전쟁을 하였고, 隋에 6회, 唐에 14회, 倭에 6회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대개 고구려를 견제하여 신라와의 전쟁에 치중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무왕의 대외정책은 대신라 강경책 중심이었다. 백제와 신라의 원수 관계는 《舊唐書》에 실린 唐太宗의 璽書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²⁷⁾ 고구려는 당시 중국과의 전쟁을 막아내고 있었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 백제를 적으로 돌린 신라는 중국과의 외교를 통한 청병에 치중하였다.

C. 眞平王 建福 19년 壬戌(602) 가을 8월에 백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阿莫城을 포위하였다. 왕이 장군 波珍干 乾品·武梨屈·伊梨伐, 級干 武殷·比梨耶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였다. 貴山과 箒項은 함께 少監으로 나갔다. 백제가 패해 泉山의 못가로 후퇴하여 군대를 숨기고 신라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군사가 진격하다가 힘이 다하여 이끌고 돌아왔다. 이때 武殷이 후군이 되어 군대의 맨 뒤에 섰는데, 복병이 갑자기 나와 갈고리로 무은을 떨어뜨렸다. 貴山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스승(圓光)에게서 ‘군사는 군대를 맞아서 물러서지 않는다’고 들었다. 어찌 감히 패배하여 달아나겠는가!”라고 하였다. 적 수십 인을 쳐 죽이고는 자기의 말로 아버지(무은)를 보내고 箒項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웠다. 모든 군사가 그것을 보고 분격하였다. 넘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고 한

27) 貞觀 元年(627)에 太宗이 그 王(武王)에게 璽書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新羅王 金眞平은 朕의 藩臣이며 王의 鄰國이요. 매번 듣건대 군사를 보내어 쉬지 않고 征討하며, 무력만 믿어 잔인한 행위를 예사로 한다 하니 너무나도 기대에 어긋나오. 朕은 이미 王의 조카 福信 및 高麗·新羅의 使人을 대하여 함께 通和할 것을 命하고, 함께 화목할 것을 허락하였소. 王은 아무쪼록 그들과의 지난 원한을 잊고, 朕의 본 뜻을 알아서 함께 鄰情을 돈독히 하고 즉시 싸움을 멈추기 바라오.” 이에 璋이 使臣을 보내어 表文을 올려 사죄하였다. 비록 겉으로는 命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실상 서로의 원수 관계가 예전과 같았다(《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百濟).

필의 말, 한 채의 수레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귀산 등도 온 몸에 칼을 맞고 돌아오는 중에 죽었다. 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阿那의 들판에서 맞이하여 시체 앞에 이르러 통곡하고 禮로써 殯葬을 치르게 하였다. 귀산에게는 奈麻 관등을, 추항에게는 大舍 관등을 추증하였다(《三國史記》 卷45, 列傳5, 貴山).

백제 무왕의 즉위 후 첫 전투는 3년(602)의 阿莫城(母山城) 전투이다. 무왕은 운봉 고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좌평 解離를 보내 4만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阿莫山城(남원시 아영면 성리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신라에게 참패하였다. 이 내용은 C의 《삼국사기》 貴山 列傳에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신라가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武殷의 아들 貴山과 小將 箒項 등의 목숨을 건 활약에 힘입은 힘겨운 승리였음이 잘 드러나 있다. 진평왕은 그들의 시체 앞에서 통곡하며 禮로써 殯葬을 치르게 하였고, 관등을 추증하여 보답하였다.

신라는 이 아막산성 전투에 승리하여 백제의 백두대간 동쪽으로의 진출을 저지하면서 기존에 확보한 옛 가야 지역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당분간 신라가 지금의 전북 동부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²⁸⁾ 이에 따라 백제는 605년 2월에 아막산성보다 후방에 角山城(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성미산성)을 쌓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신라가 백제의 동쪽 변경을 공격하기도 했다.²⁹⁾ 이후 616년에 백제 무왕이 달솔 苜奇에게 명하여 신라의 母山城(阿莫山城)을 다시 공격할 때까지³⁰⁾ 밀고 밀리는 전선이 이곳에 형성되었다.

28) 박종욱, <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69, 2013, 202~203쪽.

29)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6年(605), “春二月 築角山城 秋八月 新羅侵東鄙”

30)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17年(616), “冬十月 命達率苜奇領兵 八千 攻新羅母山城”

한편, 6세기 중엽 이후 비교적 온건하였던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603년 고구려의 신라 北漢山城 침공을³¹⁾ 계기로 대립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는 신라 진평왕이 직접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침공을 막아냈지만, 이후 고구려는 608년 2월에 신라의 북쪽 경계를 습격하여 8천명을 노획하였고,³²⁾ 4월에는 신라의 牛鳴山城을 함락시키는³³⁾ 등 신라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신라 진평왕은 608년에 승려 圓光에게 乞師表를 쓰게 하여 隋에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지원군을 요청하게 된다.³⁴⁾

백제는 607년 隋에 扞率 燕文進과 佐平 王孝隣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칠 것을 요청하였다가, 오히려 고구려에게 松山城과 石頭城을 공격당했다.³⁵⁾ 608년에 백제는 다시 隋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隋는 文林郎 裴淸을 백제 남쪽 길을 통과하여 왜국에 파견하였다.³⁶⁾ 고구려도 후방의 안정을 위해 610년 왜에 승려 曇徵과 法定을 파견하였다.³⁷⁾

611년에 隋 煬帝가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백제는

3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5年(603),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 以拒之”

3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30年(608), “二月 高句麗侵北境 虜獲八千人”

3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30年(608), “四月 高句麗拔牛鳴山城”

3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30年(608), “王患高句麗屢侵封場 欲請隋兵以征高句麗 命圓光修乞師表 光曰 求自存而滅他 非沙門之行也 貧道在大王之土地 食大王之水草 敢不惟命是從 乃述以聞”

35)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8年(607), “春三月 遣扞率燕文進 入隋朝貢 又遣佐平王孝隣 入貢兼請討高句麗 煬帝許之 令覘高句麗動靜 夏五月 高句麗來攻松山城 不下 移襲石頭城 虜男女三千而歸”

36)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9年(608), “春三月 遣使入隋朝貢 隋文林郎裴淸奉使倭國 經我國南路”

37)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8年(610), “春三月 高麗王貢上僧曇徵法定 曇徵知五經 且能作彩色及紙墨 并造碾磑 蓋造碾磑 始于是時歟”

國智牟를 隋에 보내 行軍 期日을 요청하였고, 양제는 尙書起部郎 席律을 백제에 파견하여 무왕과 서로 모의하게 하였다.³⁸⁾ 이처럼 隋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남쪽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제는 611년에 신라의 椴岑城을 공격하였고, 100여 일 동안이나 포위하여 함락시킬 정도로 이곳을 중요시하였다. 618년에는 신라가 백제의 가잠성을 탈환하였지만, 백제의 반격이 있었다. 이후 628년에도 백제가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였다.³⁹⁾ 가잠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안성 일대로 보았으나, 최근 전북 무주 나제통문 근처⁴⁰⁾ 또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비봉산성⁴¹⁾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주 나제통문 근처 설을 따른다면 가잠성도 아막성과 함께 옛 가야 지역에 대한 패권을 다투던 곳으로 볼 수 있다.

D. 다음 해 辛未(611) 겨울 10월에 백제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와서 椴岑城을 백여 일 동안 공격하였다. 眞平王은 장수에게 명령하여 上州, 下州, 新州의 군사로 가잠성을 구하게 하였다. 드디어 도착하여 백제인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讚德이 그것을 분개하고 한탄하면서 士卒에게 말하기를, ... “우리 왕이 나에게 하나의 城을 맡겼으나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패하게 되니, 원컨대 죽어서 큰 귀신[厲]이 되어 백제인을 다 물어 죽이고 이 성을 되찾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팔을 걷어 부치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

38)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12年(611), “春二月 遣使入隋朝貢 隋煬帝將征高句麗 王使國智牟入請軍期 帝悅厚加賞錫 遣尙書起部郎席律 來與王相謀”

39)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9年(628), “春二月 遣兵攻新羅椴岑城 不克而還”

40) 윤선태, <武王과 彌勒寺-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학술심포지엄 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63~65쪽.

41) 전덕재, <椴岑城의 位置와 그 戰鬪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경계》 87, 2013.

나가 槐樹에 부딪혀서 죽었다. 이에 성이 함락되었고 군사가 모두 항복하였다. ... 建福 35년 戊寅(618)에 왕이 奚論을 金山 幢主에 임명하여 漢山州 都督 邊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가잠성을 습격하여 그것을 빼앗았다. 백제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왔다. 해론 등이 그들을 맞았고 군사들은 이미 서로 교전하였다. 해론이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전에 나의 아버지가 여기에서 숨을 거두셨다. 나도 지금 또한 여기에서 백제인과 더불어 싸우니,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短兵을 가지고 적에게 나아가 몇 명을 죽이고는 죽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족을 매우 후하게 도왔다. 당시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長歌를 지어 그를 조문하였다(《三國史記》 卷47, 列傳,7 奚論).

611년과 618년의 가잠성 전투에서 활약한 신라의 讚德과 奚論에 대한 설화가 D의 《삼국사기》 奚論 열전에 전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611년 당시 가잠성 縣令이었던 讚德은 백제에 성을 빼앗기자 “죽어서 큰 귀신이 되어 백제인을 다 물어 죽이고 이 성을 되찾겠다”면서 죽었다. 618년에는 찬덕의 아들 奚論이 가잠성을 탈환하였으나 백제가 다시 공격하였고, 해론은 “아버지가 여기에서 숨을 거두셨고 나 또한 여기에서 백제인과 더불어 싸우니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라면서 나아가 싸우다 죽었다. 이때 진평왕은 아막성 전투에서 귀산과 추항의 예와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해론을 조문하였는데, 관등을 추증하지는 않았으나 가족을 후하게 돕고 長歌를 지었다.

이처럼 신라 진평왕 시기에 백제 무왕과의 주요 교전지였던 아막산성과 가잠성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열전 등에 관련된 인물 설화가 자세히 전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당시 백제와 신라 사이의 원수 관계와 전쟁의 치열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신라의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승리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백제 군대의 강함에 따른 신라의 위기감이 짙게 느껴지며, 몇몇 용맹한 인물들의 활약에 의해

가까스로 신라가 이룩한 승리였음이 설화의 이면에 잘 드러나 있다.

이때까지 일전일퇴를 거듭하던 신라와 백제의 전쟁은 623년 백제의 신라 勒弩縣(충북 괴산군 괴산읍) 공격과⁴²⁾ 624년 速含城(경남 咸陽郡 함양읍) 등 6성 공취⁴³⁾ 이후부터 그 전투 양상이 1·2년 단위로 간격이 매우 단축되면서, 모두 백제의 선제 공격으로 전투가 발생하고 백제가 우위에 서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E. 이에 백제의 침공이 더욱 급박해져 速含·歧峯·穴柵의 세 성이 혹은 함락되거나 혹은 항복하였다. 訥催는 세 성을 굳게 지키다가, 5군이 구원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병졸에게 이르기를, “봄날의 따뜻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꽃을 피우지만, 추위가 오면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늦게 낙엽진다. 지금 외로운 성에 구원이 없어, 날로 대단히 위험해지고 있다. 지금이 진실로 뜻있는 병사와 의로운 사람이 절조를 다 바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때이다. 너희들은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병졸들이 눈물을 뿌리며, “감히 죽음을 아끼지 않고 오직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성이 장차 함락됨에 미치자 군사들이 죽어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결심하고 싸워 구차히 살아 보겠다는 마음이 없었다. 訥催에게 한 명의 종이 있었는데,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다. 어떤 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小人에게 특이한 재주가 있으면 해롭지 않은 경우가 드무니, 이 종을 마땅히 멀리하라!”고 하였으나, 訥催는 듣지 않았다. 이때에 성이 함락되어 적이 들어오자, 종은 활을 당기어 화살을 끼워 訥催 앞에서 쏘는데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적이 두려워하여 앞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한 명의 적군이 뒤에서 나와 도끼로 訥催를 쳐 쓰러졌다. 종이 돌아서서 싸우다가 함께 죽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비통해 하고, 訥催에게 級滄의 관등을 추증하였다(《三國史記》 卷47, 列傳7, 訥崔).

42)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4年(623), 秋 遣兵侵新羅勒弩縣

43)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5年(624), “冬十月 攻新羅速含櫻峯歧峯烽峯旗懸穴柵等六城 取之”

이 당시 백제의 열면 공세와 신라의 위기의식은 E의 《삼국사기》 訥崔 열전에 잘 드러나고 있다. 624년 백제의 速舍城 등 6성 공취 때 활약한 신라의 訥崔는 3성이 함락되고 남은 3성을 지키다가 백제의 예봉에 눌린 5군이 구원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하였으며, 결국 몇몇 군사들과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에 진평왕은 아막성 전투에서 귀산과 추항의 예나 가잠성 전투에서 해론의 예와 마찬가지로 비통해하면서 눌최에게 級滄 관등을 추증하였다.

이후에도 626년에는 백제가 신라의 王在城을 공격하여 성주 東所를 죽였다.⁴⁴⁾ 627년에는 백제 무왕이 장군 沙乞에게 명하여 신라 서부 변경의 두 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수복하려고 크게 군대를 일으켜 熊津에 주둔하자, 신라 진평왕은 놀라 당에 사신을 보내 급박함을 알리기도 했다.⁴⁵⁾

한편, 629년에는 신라 진평왕이 대장군 金龍春과 金舒玄, 부장군 金庾信을 보내 고구려의 동쪽 변경인 娘臂城을 공격하였는데, 김유신의 활약으로 5,000여 명을 살해하는 대승을 거두기도 한다.⁴⁶⁾

백제 무왕의 신라 서쪽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신라에서 진평왕이 죽고 선덕여왕(재위 632~647년)이 즉위한 직후인 632년과⁴⁷⁾

44)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7年(626), “秋八月 遣兵攻新羅王在城 執城主東所殺之”

45)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8年(627), “秋七月 王命將軍沙乞拔新羅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羅王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 乃止”

4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51年(629), “秋八月 王遣大將軍龍春舒玄副將軍庾信 侵高句麗娘臂城 麗人出城列陣 軍勢甚盛 我軍望之 懼殊無鬪心 庾信曰 吾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綱張 吾其爲綱領乎 乃跨馬拔劍 向敵陣直前 三入三出 每入或斬將或搴旗 諸軍乘勝 鼓噪進擊 斬殺五千餘級 其城乃降”

633년에도⁴⁸⁾ 벌어지며, 636년에는 백제의 장군 于召가 경주 부근의 獨山城과 玉門谷까지 공격하게 된다.⁴⁹⁾ 이는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백제가 경주 부근에까지 이르러 매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왕의 끊임 없는 신라 서쪽 변경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교통로 확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⁰⁾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신라 진평왕 시기의 대내외적 상황을 안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백제와의 전쟁에 의한 위기 의식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Ⅲ. 신라·백제 관계에서 역사의 충돌과 설화의 화해

신라 진평왕과 백제 무왕은 2장에서 살폈듯이 서로 국운을 건 치열한 전쟁 관계였음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백제의 공세가 강화되고 신라의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신라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설화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동 설화

47)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33年(632), “秋七月 發兵伐新羅 不利”

48)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34年(633), “秋八月 遣將攻新羅西谷城 十三日拔之”

49)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37年(636), “夏五月 王命將軍于召帥甲士五百 往襲新羅獨山城 于召至玉門谷日暮 解鞍休士 新羅將軍闕川將兵 掩至鑿擊之 于召登大石上 彎弓拒戰 矢盡爲所擒”

50) 정운용, <신라와의 관계> 《百濟의 對外交渉(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32~137쪽.

의 경우, 2장에서 살핀 여러 인물들이 전쟁이라는 역사의 충돌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화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곧, 서동 설화 속에서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과 혼인하였고, 두 왕이 서로 존경하면서 교류하였으며, 그 매개로 지명법사라는 승려도 등장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그동안 이 서동 설화에 대해서는 백제사의 입장에서 무왕의 출자 문제와 미륵사의 건립과 관련하여, <舍利奉安記>가 쓰여진 639년 당시 무왕비로 밝혀진 좌평 사택적덕의 딸과 선화공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필자도 이 설화가 고조선-마한계 무강왕 신화가 백제 무왕 시기에 마한과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익산 중시와 함께 국가 신화로 자리잡았음을 밝힌 바 있다.⁵¹⁾ 이번 장에서는 이 서동 설화에 대하여 백제 멸망 후 신라 쪽에서 이루어진 변용 부분에 비중을 두면서 신라-백제 관계를 역사의 충돌과 설화의 화해라는 키워드로 다시 정리해보고자 한다.⁵²⁾ 그 과정에서 서동 설화 속 신라-백제 관계의 매개가 되는 선화공주와 지명법사의 역사상과 설화상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무왕비 佐平 沙毛積德女의 존재와 선화공주의 실존 여부에 대하여 당대 금석문인 <舍利奉安記>와 《일본서기》의 國主母 기록을 《삼국유사》 서동 설화와 비교하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51) 이장웅,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 38, 2012 참조.

52) 권영필,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두성북스, 2011, 194쪽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종교 탄압이라는 강력한 문명 충돌의 시기에서도 서양화법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극적 의미로는 ‘화해’-했던 것은 예술 자체에 내재한, 끊기지 않으려는 운동으로서의 지향성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동서 미술 교섭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았다. 필자는 이 모티프를 역사와 설화에 차용하여, 전쟁이라는 역사의 충돌 상황을 설화 속에서는 따뜻한 모습으로 화해시킨다는 측면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F.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佐平 沙毛積德의 딸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善因을 심어,今生에 뛰어난 과보를 받아 萬民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三寶의 棟梁이 되셨기에, 능히 淨財를 희사하여 伽藍을 造立하시고, 己亥年(639) 정월 29일에 舍利를 받들어 맞이하였습니다. 원하옵나니, 세세토록 공양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어서 이 善根을 우러러 자산으로 하고, 大王 陛下의 수명은 山岳과 같이 견고하며 寶曆은 天地와 함께 영구하여, 위로는 正法을 넓히고 아래로는 蒼生을 교화하게 하소서(<彌勒寺址 西塔 舍利奉安記(639)>).

G. 二月 丁亥朔 戊子 ... “지난 해(641) 11월 大佐平 智積이 죽었습니다. 또 백제 사신이 崑崙의 사신을 바다 속에 던졌습니다. 금년(642) 정월에 國主母가 죽었고, 또 아우 王子의 아들 翹岐와 그 누이동생(母妹 女子) 4명, 內佐平 岐味, 그리고 이름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 5月 丙子에 翹岐의 아이가 죽었다. 이 때 翹岐와 妻는 아이가 죽은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 喪에 나아가지 않았다. 무릇 백제와 신라의 풍속에 죽은 사람이 있을 경우, 비록 부모 형제 부부 자매라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보지 않는다(《日本書紀》 卷24, 皇極天皇 元年(642)).

H-1. 武王[《古本》에는 武康이라 했으나 잘못이다. 百濟에는 武康이 없다.]

H-2. 제30대 武王의 이름은 璋이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京師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池龍과 관계하여 태어났으며, 어릴 때 이름을 薯童이라 하였다. 재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國人이 이로 인하여 이름 하였다.

H-3. 신라 眞平王의 셋째 공주 善花[혹은 善化]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京師로 갔다. ... 함께 백제에 이르러 母后가 준 금을 내어 장차 살아갈 계획을 의논하니 서동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이요?” 공주가 말하기를, “이것은 황금으로, 가히 백년의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서동이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는 진흙처럼 많이 쌓여 있소”라고 하였다. 공주가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이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입니다. 그대가 지금 금이 있는 곳을 아시면, 이 보물을

부모의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동은 좋다고 말했다. 이에 금을 모아 구릉과 같이 쌓고, 龍華山 師子寺의 知命法師에게 가서 금을 옮길 계책을 물으니, 법사가 말하기를, “내가 신통한 힘으로 옮길 수 있으니 금을 가져 오시오”라고 하였다. 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두었다. 법사는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에 신라 궁중으로 옮겨 두었다. 진평왕은 그 신이한 변화를 뛰어나게 여겨 존경함이 더욱 깊어져, 항상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은 이로 인하여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H-4. 어느 날 왕이 夫人과 함께 師子寺에 가려고 龍華山 아래의 큰 못가에 이르니, 彌勒 三尊이 못 가운데에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공경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 땅에 큰 伽藍을 짓는 것이 굳은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었다. 이에 彌勒 三尊의 형상을 본떠서 殿과 塔과 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彌勒寺[《國史》에서는 王興寺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진평왕이 百工을 보내 이를 도왔다. 지금도 그 절이 남아 있다.[《三國史》에서는 이를 法王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이 傳에서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三國遺事》 권2, 紀異2, 武王)

F의 <彌勒寺址 西塔 舍利奉安記>에서는 백제 무왕 말년인 639년에 무왕비가 佐平 沙毛積德의 딸임을 밝히고 있다. G는 의자왕 2년(642)에 國主母가 죽자 그와 관련된 왕실 가족들을 내쫓는 친위 정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F에서 639년에 무왕비였던 사택 왕후는 대개 G에서 642년에 죽은 국주모로 보고 있다. 두 기록 사이에는 3년의 간격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의자왕 즉위 초에 국주모로 불렸을 인물은 무왕 말년의 왕후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백제 무왕의 초기 왕후로 선화공주를 설정하고, 후기에 사택 왕후를 상정하는 견해에서는 G기록을 중시한다. 곧, 642년에 國主母, 곧 무왕비인 沙毛積德女의 죽음과 동시에 의자왕이 친위정변을 일으킨 점에서, 의자왕은 國主母(沙毛積德女)의 소생이 아니라 일찍 죽은 선

화공주의 소생으로 보고 정치적 상황을 해석하려는 것이다.⁵³⁾ 그렇다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지 다른 문헌과 금석문 자료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 보자.

<扶餘隆墓誌>에 의하면 무왕의 손자인 부여음이 615년에 태어났다는 점에서,⁵⁴⁾ 그의 아버지 의자왕은 595년경에는 태어났을 것이므로, 642년 당시 의자왕의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G 기록에서 642년에 의자왕 동생의 아들인 翹岐가 妻를 대동하고 倭에 가 있으면서 아이가 사망했으므로, 교기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기의 아버지인 의자왕 동생은 40대 초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40대 후반으로 본 의자왕의 나이 추정도 적당함을 보여준다. 자연스럽게 642년에 40대 초반의 아들(교기의 아버지인 의자왕 동생)을 두고 사망한 國主母(沙毛積德女)는 60대 초반의 나이였음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의자왕도 국주모의 아들이었다면 그 이상의 나이였을 것임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주모(사택 적덕녀)는 무왕 즉위시인 600년부터 이미 왕비였다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 물론 무왕 초반에 잠깐 다른 인물이 왕비였으며 그 소생이 의자왕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적은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기 왕후를 바로 설화 속의 선화공주로 연결시켜 볼 개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신라 왕실의 입장에서 진평왕의 딸 ‘善花’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살펴보겠다. 진평왕 당시 신라 왕실은 자신들이 釋迦族이라는 釋宗意識을 보이고 있었다.⁵⁵⁾ 眞平王의

53) 이도학, <彌勒寺址 西塔 <舍利奉安記>의 分析> 《白山學報》 83, 2009, 258~259쪽.

54) 春秋 68세로 私第에서 薨하였다. ... 永淳 元年(682) 歲次 壬午 12월 24일 癸酉에 洛陽 北茫 淸善里에 장례를 치렀으니, 예의에 맞는 것이다(<扶餘隆墓誌銘>).

이름은 白淨으로 석가의 아버지 이름이며, 왕비 김씨는 摩耶夫人으로 석가의 어머니 이름이다. 진평왕의 두 동생은 伯飯과 國飯인데, 이는 모두 석가 삼촌의 이름들이다. 만약 진평왕에게서 왕자가 태어났다면 그는 석가로 불리웠을 것이다. 그런데 진평왕에게는 후에 善德女王이 되는 ‘德曼’과 김춘추의 어머니가 되는 ‘天明’ 두 공주만 정사에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善花’는 진평왕 시기 왕실의 釋宗意識과는 달리 미륵신앙과 관련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진평왕의 딸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데,⁵⁶⁾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만약 진평왕에게 셋째 딸이 있었다면 무왕비가 될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앞서 살핀대로 의자왕은 무왕의 즉위 이전인 595년경에는 태어났으므로, 진평왕의 셋째 딸이 의자왕을 낳으려면 적어도 575년 이전에는 태어났어야 한다. 그런데 《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에 의하면, 김춘추는 龍朔元年(661) 辛酉에 59세로 崩했으므로 603년생이라는 점에서, 그의 어머니이자 진평왕의 첫째 혹은 둘째 딸인 천명공주는 583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평왕에게 셋째 딸이 있었다면 빨라야 585년 이후에 태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의자왕이 태어날 당시에 만약 진평왕에게 셋째 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살 이하였을 것이므로, 그가 무왕비가 된 이후 595년경에 의자왕을 낳을 수는 없다.

정리해보면, 서동 설화 속 선화공주는 그밖의 진평왕 시기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당시의 석종의식으로 보아서도 적당하지 않은 이름이며, 굳이 진평왕의 셋째 딸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백제 무왕비가 되어 의자왕을 낳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방면의 검토를 통

55)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の 釋迦佛信仰> 《한국학논총》 10, 1988, 33쪽.

56) 문경현, <백제 武王과 선화공주> 《新羅史學報》 19, 2010.

해 서동 설화를 바로 역사적 사실과 등치시켜 볼 수는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서동 설화가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설화적 진실의 관점에서 살펴야 비로소 역사와 설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곧, 서동 설화의 화소를 가지고 있는 무속 신화인 ‘감은장 애기(삼공 본풀이)’의 주인공이 셋째 딸로 설정된 것이나 ‘최진사댁 셋째 딸’ 이야기처럼, 이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정형화된 패턴의 설화 유형 속에서 선화공주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셋째 딸로 설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이번에는 미륵사의 단계적 건립 가능성을 통해, 미륵사 창건의 발원 주체를 단계별로 나누면서 설화 속의 선화공주를 끌어들이 사상적 차이를 보려는 견해⁵⁷⁾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신라의 황룡사가 오랜 과정을 거쳐 완공되었듯이, 이에 비견되는 백제의 미륵사 역시 많은 시간이 걸려 건립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신라 황룡사의 경우 《三國史記》에 의하면 진흥왕 14년(553)에 착공하여 27년(566)에 완공되었고, 진흥왕 35년(574)에 황룡사 丈六尊像을 주조하였다. 《三國遺事》에서는 진흥왕 30년(569)에 절의 주위에 담을 돌려 절이 완공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후 진평왕 6년(584)에 金堂을 조성하여 三金堂이 이루어졌으며, 善德女王 14년(645)에 9층 목탑을 세워 대가람을 완성하였다.

미륵사의 탑 건립 순서는 중원의 목탑이 먼저 건립되었으며, 서탑이 그 다음, 동탑이 마지막으로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술사적 검

57) 길기태, <彌勒寺 創建의 信仰的 性格> 《韓國思想史學》 30, 2009 ; 조경철, <백제 익산 彌勒寺 창건의 신앙적 배경－彌勒信仰과 法華信仰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32, 2009.

토로는 서탑에서 기둥석과 면석을 별개의 석재로 조립하였으나, 동탑은 2층 이상의 탑신석에서 기둥과 면석을 같은 부재로 하여 탑신에 기둥의 모양을 模刻하여 나타내는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⁵⁸⁾ 이러한 건립 순서는 고고학적 성과인 발굴보고서의 토층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리봉안기>에 나타난 639년에 서탑 1층 심초석 상면 심주에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보아, 동탑까지 축성되는 미륵사의 완공은 무왕의 재위 기간을 넘은 시점이었을 수도 있다.⁵⁹⁾

이러한 단계적 건립설에 착안하면서 <사리봉안기>의 내용에는 미륵신앙의 요소가 보이지 않고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法王과 사리 봉양의 석가불 신앙을 찾을 수 있으므로, 미륵사의 중원은 미륵신앙자인 선화공주가, 동원과 서원은 법화신앙자인 사택 왕후가 건립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砂宅智積의 ‘智積’이 법화경에 등장하고, 법화경의 석가 계보와 백제 왕실 계보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택 왕후도 법화신앙자로 본 것이다.⁶⁰⁾ 그러나 미륵사에 법화신앙의 흔적이 있다는 증거는 사택 왕후의 성씨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미륵사에서 미륵신앙과 석가신앙의 대립을 읽으려는 견해도 있다. 法王과 舍利는 석가모니와 관련되므로 <사리봉안기>를 석가신앙으로 파악하면서, 국왕과 사씨 세력이 주축이 된 사비 중심의 석가신앙 세력이 익산 중심의 미륵신앙을 驅逐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⁶¹⁾

58) 장경호, 《아름다운 백제건축》, 주류성, 2004, 228쪽.

59) 양정석, <彌勒寺址 塔址의 調査過程에 대한 檢討> 《韓國史學報》 36, 2009.

60) 조경철, <백제 익산 彌勒寺 창건의 신앙적 배경－彌勒信仰과 法華信仰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32, 2009.

61)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미륵사 서탑 사리 봉안> 《新羅史學報》 16, 2009.

하지만 <사리봉안기> 발견 이후 선화공주는 실존 인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찰을 법화신앙과 미륵신앙으로 나누어 보거나, 사리 봉안을 석가불 신앙으로 이해하여 이를 미륵불 신앙과 구별해 볼 수는 없으며, 미륵사 3원 3탑의 가람 구조는 처음부터 백제 왕후 사택적덕의 딸에 의하여 일정한 기획 의도 아래 건립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무왕 40년(639)에 이루어진 미륵사 서탑의 불사리 봉안도 탑을 세워 사리를 공양한 공덕으로 미래세에는 미륵불의 처소에 이를 수 있다는 《彌勒下生成佛經》의 내용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았다.⁶²⁾

당시에는 불교 종파의 성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다양한 불교신앙이 사원 건립의 배경으로 함께 등장할 수는 있으나, 한 사원의 건립 주체를 여럿으로 나누어 신앙의 차이와 대립까지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사리봉안기> 속의 역사와 《삼국유사》 속의 설화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동등하게 인정하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들을 병렬로 배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당시의 금석문 기록인 <사리봉안기>에서 왕후인 사택적덕의 딸이 재물을 희사하여 미륵사 伽藍 전체를 造立했다고 기록한⁶³⁾ 점에 보다 주목하여 이들 자료가 지닌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진실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 바 있다.⁶⁴⁾

선화공주를 실존 인물로 보는 견해에서도 백제와 신라의 적대적 관

62) 김상현,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韓國史學報》 37, 2009.

63) <王興寺址 舍利器 銘文>에서는 “丁酉年(577) 二月十五日 百濟王昌爲亡王子立刹 本舍利二枚 葬時神化爲三”이라고 하여 목탑의 찰주를 세웠다는 “立刹”로 표현하고 있어, “造立伽藍”으로 표현한 <舍利奉安記>와의 차이가 주목된다.

64) 이장웅,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 38, 2012.

계 때문에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의 혼인은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화공주를 익산 재지세력으로 재설정하기도 한다.⁶⁵⁾ 이는 역사와 설화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자 한 데에서 벌어진 苦肉之策이다. 하지만 필자는 선화공주를 백제 무왕 시기의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 그를 익산과 관련이 있었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인물로 본다.⁶⁶⁾ 곧, 백제 무왕은 마한의 거점이었던 익산을 중시하면서 이 지역 설화의 원형이 되는 마한 무강왕 신화를 백제 신화로 받아들여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는데, 선화공주는 바로 이 무강왕 신화 속의 인물이었다. 이에 따라 익산은 무왕의 실제 성장지가 아니었지만 신화 속에서 그의 성장지로 설정되었고, 실제 무왕비였던 좌평 사택적덕의 딸은 마한 무강왕비였던 선화부인에 부회되면서 백제 무왕 시기에 맞게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로 재설정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엘리야데가 “역사적 인물의 신화화”라는 이론으로 잘 설명하였다.⁶⁷⁾ 이에 의하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은 신처럼 여러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신화적 인물로 전승되며, 따라서 그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실제 사건들과는 무관하게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달리 활약하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중

65)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관계> 《백제문화》 42, 2010, 77~78쪽 ; 강종원, <백제 무왕의 대신라 강경책과 그 배경> 《百濟研究》 65, 2017, 159~161쪽.

66) 이장웅,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 38, 2012.

67) Eliade, M., *Cosmos and History : The Myth of Eternal Return*(trans. Willard R. Trask, 1959) ; 鄭鎮弘譯, 《宇宙와 歷史－永遠回歸의 神話》, 現代思想社, 1976, 66~72쪽.

의 기억 속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회상은 오래 존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건들과 진짜 모습들을 잘 간직하지 못하지만(집단 기억의 비역사성), 실제 사건 대신에 큰 범주로, 역사적 인물의 실제 행적 대신에 행동의 원형이 자리잡으면서 오랫동안 전승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민중들에게 실제 역사보다 더 소중한 진실로 여겨진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신화였고, 실제의 역사는 오히려 곡해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 예로 《일리아스》는 기원전 1250년경의 트로이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알맹이를 기반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많은 영웅들의 행적들과 지역 전설들이 첨가되면서 많은 윤색이 가해진 작품이다. 그러므로 《일리아스》의 주요 등장 인물과 지역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들이 실제 트로이 전쟁과 관련하여 역사적 진실성을 지니지는 않는다.⁶⁸⁾ 그런데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담론 형성 과정도 이러한 신화 형성 과정과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화적 사고는 고대인만의 것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 곧, 기억과 구술의 반복 과정에서 대중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과 그럴듯하지 않은 것들은 누락시키고, 결국 집단 정신으로 응결된 담론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신화처럼 집단 표상이자 구술 문화적 성격을 띤다고 한다.⁶⁹⁾

따라서 아득한 건국신화의 시기만이 아니라 국가 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도 신화를 통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신라와의 치열한 전쟁 수행을 하면서 백제는 대다수가 마한의 후예인 한반도 남부 지역 민중들을 결집하고 포용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였고, 이에 백제 무왕은 마한의 무강왕 신화를 국가의 신화로

68) 김현자, 《신화, 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 책세상, 2004, 114~115쪽.

69) 김현자, 《신화, 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 책세상, 2004, 65~67쪽.

받아들이어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이를 통해 三韓一統의 식을 신라보다 먼저 제시했을 수도 있다.

당시의 역사적 事實은 法王의 아들인 武王이 사택 왕후와 함께 익산에 미륵사를 세워 백제의 마한 정통성 계승을 내세우면서 신라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한 것이다. 그런데 설화 속에서는 池龍의 아들로 마한의 영웅이었던 무강왕과 동일시된 백제 무왕이 신라 진평왕, 그의 셋째 딸 선화공주, 사자사 지명법사와의 친근한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익산에 미륵사를 세운 것으로 설정하여, 탈시간적 구조 속에서 이를 설화적 眞實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리봉안기>에 의하면, 미륵사를 창건한 주체가 선화공주는 아니지만 설화와 마찬가지로 무왕비라는 점에서, 백제 무왕대의 역사적 인물인 사택적덕의 딸이 서동 설화 속의 선화공주와 결부될 개연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백제 무왕을 이은 의자왕도 아버지를 계승하여 신라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였다. 2년(642) 7월에는 친히 신라를 공격하여 獼猴城 등 40여 성을 함락하였고, 8월에는 장군 允忠을 보내 신라 大耶城을 공격하여 성주 品釋과 妻인 김춘추의 딸을 죽이고 성을 함락시켰다.⁷⁰⁾ 643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연결하여 신라의 대당 교통로 거점인 당항성 공격을 시도하였고, 이에 신라는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⁷¹⁾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설화가 아닌 역사에

70)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年(642), “秋七月 王親帥兵 侵新羅下獼猴等四十餘城 八月 遣將軍允忠 領兵一萬 攻新羅大耶城 城主品釋 與妻子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 傳之王都 生獲男女一千餘人 分居國西州縣 留兵守其城 王賞允忠功 馬二十匹 穀一千石”

71)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3年(643),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 請救於唐 王聞之 罷兵”

서 백제와 신라의 문화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 I. 善德大王 12년(643) 癸卯歲 ... 皇龍寺에 9층 窣堵波를 세우면 海東의 여러 나라가 모두 그대의 나라에 항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慈藏이 이 말을 듣고 돌아와 왕에게 알렸다. 이에 伊干 龍樹를 監君으로 하여 大匠인 백제의 阿非 등이 小匠 200인을 데리고 이 塔을 만들도록 명했다. 14年(645) 歲次 乙巳에 처음 건립하기 시작하여 4월 □□에 刹柱를 세우고 이듬해에 공사를 마쳤다(<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872)).

I의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에 의하면, 대야성 전투 다음해인 643년 무렵에 백제 大匠 阿非가 신라에 초청되어 645~646년에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백제에 공장 파견을 요청하였고, 백제는 이에 응해 大匠 阿非 등을 보낸 것이다. 이는 이미 미륵사 9층 목탑 등을 건립했던 백제의 뛰어난 기술에 대한 필요와 함께, 이를 매개로 백제의 군사적 압박을 완충시켜 보려는 신라의 외교적 의도로도 볼 수 있다.⁷²⁾

《梁書》 新羅傳에 의하면, 521년에 신라는 백제의 소개로 중국 남조의 양과 처음으로 통교하였다.⁷³⁾ 이후 신라 중고기의 불교에 대해서도 고구려나 북조 계통의 영향만이 아니라 남조 계통의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⁷⁴⁾ 여기서 백제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견해도 있다.⁷⁵⁾

72) 盧重國, <新羅와 百濟의 交涉과 交流> 《新羅文化》 17·18합, 2000, 19쪽.

73) 《梁書》 卷54, 列傳48, 東夷 新羅, “其國小 不能自通使聘 普通二年 王姓募名秦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74) 辛鍾遠, <6世紀 新羅佛敎의 南朝的 性格> 《新羅初期佛敎史研究》, 1992, 민족사.

75) 崔鈞植, <6世紀 東아시아 地域의 佛敎擴散過程에 대한 再檢討> 《忠淸學과 忠淸文化》 13, 2011 .

월지(안압지), 황룡사지, 월성 해자, 물천리 가마터 등의 와당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신라 중고기 와당의 성립에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의 영향이 6세기 초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는 의견이 있다.⁷⁶⁾ 그리고 백제 대통사와 신라 興輪寺에서 같은 문양과 기술로 제작된 기와가 사용된 점을 통해, 이때부터 백제의 瓦工을 비롯한 사원조영 기술 전체가 신라에 종합적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역할도 일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견해도 있다.⁷⁷⁾

H-4의 《삼국유사》 서동 설화에서는 I의 금석문 기록과는 반대로 신라 진평왕이 百工을 보내 백제의 미륵사 건립을 도왔다. 하지만 위에서 살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서도 백제가 신라에 장인을 보낸 것이 사실일 것이다. 또한, H-3 《삼국유사》 서동 설화에서는 백제 무왕이 지명법사를 통해 많은 금을 신라 진평왕에게 보냈고, 진평왕은 그 신이함을 뛰어나게 여겨 존경함이 깊어져 항상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백제 무왕은 옛 가야 지역이자 철 산지이기도 한 장수와 운봉 지역을⁷⁸⁾ 두고 신라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따라서 중요 자원이었던 철의 확보를 두고 벌인 경쟁이 설화 속에서는 서로 금을 보내며 화해하는 친밀한 관계로 달리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곧, 신라가 백제를 통합한 이후 백제인을 회유하

76) 김성구, 《백제의 와전 예술》, 주류성, 2004, 154~166쪽.

77) 李炳鎬, <경주 출토 백제계 기와 제작기술의 도입과정> 《韓國古代史研究》 69, 2013, 43~46쪽.

78)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 지역에 철 산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곽장근,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 2017 등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이 지역에서 철 산지와 제철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의자왕 초반에 벌어진 大耶城 전투를 합천의 冶爐鐵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문경현, <진한의 철산과 신라의 강성> 《대구사학》 7·8합, 1973, 48쪽).

기 위한 사상 통합의 일환으로, 백제와 신라가 무왕대에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설화가 신라의 입장에서 덧붙여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신라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변용되어 이루어진 당시의 설화적 진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동 설화 속에서 선화공주와 함께 백제와 신라 관계의 매개로 등장하는 知命法師의 실체와 그 설화적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J. 居柒夫는 젊었을 때 마음이 해이하여 실없지 않았고 원대한 뜻을 품었으며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四方을 돌아다니며 구경하였다. 곧 高句麗를 엿보려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惠亮法師가 堂을 개창하여 經을 講說한다는 말을 듣고는 나아가 講經을 들었다. ... 12년 辛未(551) ...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백제인이 먼저 平壤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거칠부 등은 승리를 틈타서 竹嶺 바깥 高峴 이내의 10郡을 빼앗았다. 이때 惠亮法師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길가로 나왔다. ...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란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거칠부와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그를 왕에게 뵈게 하니, 왕이 僧統으로 삼았다. 비로소 百座講會 및 八關의 法이 두어졌다(《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K-1. 7월에 高僧 智明이 불법을 배우러 陳에 들어갔다(《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7년(585)).

K-2. 9월에 高僧 智明이 入朝使인 上軍을 따라서 돌아왔다. 왕이 戒行을 존경하여 大德으로 삼았다(《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4년(602)).

L. 승려 智明은 新羅人이다. ... 스님은 세상에 뛰어난 재목으로 진평왕 7년(585) 가을 7월에 나루(道)를 묻는 지름길을 찾고자, 陳에 들어가 法을 구하였다. ... 표연히 한 번 떠난 것이 어느새 10년으로, 학문은 이미 진수를 얻었으므로 마음은 法燈을 전하는 데에 간절하였다. 진평왕 24년(602) 9월에 入朝使를 따라 귀국하였다. 왕은 그의 風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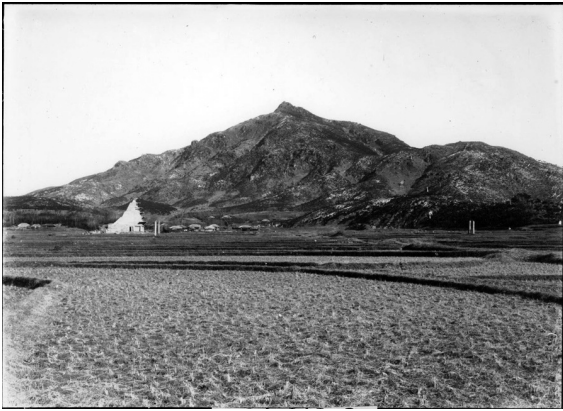
우러러 사모하며, 戒律을 추앙하고 귀중히 여겨 大德으로 포상하고 가까이 오기를 권하였다. ... 뒤에는 大大德이 더해져 우뚝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죽은 곳은 알지 못한다(《海東高僧傳》 卷2, 流通2, 釋智明).

J사료는 신라 거칠부가 젊었을 때 승려가 되어 고구려를 염탐하다가 혜량법사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신라가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확보하던 시기에 다시 만나 함께 신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로 보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당시에도 승려는 타국과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이를 이용한 첩보전도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로 보아 K와 L사료에 등장하는 신라 진평왕 시기에 활약한 신라 승려 智明을 서동 설화 속 백제 사자사 지역에서 활동한 知命法師와 동일 인물로 보면서, 그를 첩보 승려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新羅僧 智明(=知命)은 진평왕 7년(585)에 陳에 유학하여 10년 정도 머물렀고, 백제로 건너가 사자사에 있으면서 첩보 승려 노릇을 하다가 진평왕 24년(602)에 신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진평왕이 智明의 귀국과 동시에 大德을 제수하고, 이후 大大德까지 더한 것은 그 공로였다고 한다.⁷⁹⁾ 智明은 신라 최초로 大德의 칭호를 받은 승려이기도 하다. 大德은 僧官과는 다른 체계로 僧團의 필요에 의해 두어진 僧職으로, 진평왕이 지명을 大德으로 모신 것은 戒律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교화를 기대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⁸⁰⁾

79) 金福順, <三國의 諜報戰과 僧侶> 《韓國 古代佛教史 研究》, 민족사, 2002, 78~87쪽.

80) 신선혜, <신라 중고기 僧職의 설치와 僧團> 《佛敎研究》 46, 2017, 194~200쪽.



익산 미륵사지와 사자사
(谷井濟一, 1917)



익산 미륵사지와 사자사
(이장웅, 2018)

그러나 智明의 10년은 陳에서 佛法의 진수를 얻은 시간이므로 백제에 머물 여유는 없으며, 17년 동안 계속 陳에 머무르다가 신라로 귀국한 사실이 K와 L의 기록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智明과 知命은 별개의 인물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⁸¹⁾ 필자는 이 의견처럼 신라승 智明이 백제에 머문 적이 없이 陳에 유학했다가 신라로 돌아왔음에 동의한다. 다만 서동 설화 속 백제 무왕 시기의 知命法師는 백제의 승려로 따로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신라 승려 지명을 바탕으로 설화 속에서 설정된 인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동 설화에서 백제의 익산 지역 사자사에 머무르던 知命法師는 선화공주로부터 서동이 캔 금을 신라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편지와 금을 신라 진평왕에게 전달하였고, 무왕이 선화공주의 청으로 미륵사를 창건할 때 못을 메울 방도를 묻자 산을 무너뜨려 평지로 만드는 등 백제와 신라 사이의 평화로운 연결 통로이자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동 설화 속의 知命은 선화공주와 마찬가지로 당시 백제에 실존한 인물은 아니지만, 신라 진평왕대에 실존했던 신라 승려 智明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의 충동을 설화의 화해로 이끌기

81) 盧重國, <百濟 武王과 知命法師> 《韓國史研究》 107, 1999, 23쪽.

위한 장치로 재구성된 인물로 보고자 한다.

이처럼 서동 설화의 신라적 변용이 이루어진 이유는, 신라가 익산 金馬渚의 報德國을 통해⁸²⁾ 고구려를 아우르고자 한 시기에 같은 익산을 배경으로 한 서동 설화의 변형을 통해 백제를 정신적으로 아우르고자 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신라는 문무왕 11년(671)에 부여 지역에 所夫里州를 설치하여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를 본격화하였고, 14년(674)에 安勝을 報德王으로 책봉하였으며, 신문왕 3년(683)에 안승을 왕경으로 불러 蘇判으로 삼고 金氏 성을 내리면서 보덕국을 신라의 지배체제 안에 포용하려 하였다. 여기서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과 보덕국의 고구려 유민 편입이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동 설화의 신라적 변용이 이루어진 시기도 바로 이 시기로 추정하고자 한다. 곧, 신라는 문무왕 시기를 거쳐 신문왕 시기에 이르러 一統三韓 의식이 반영된 9주 5소경의 정비와 9서당 편제와 같은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萬波息笛 설화를⁸³⁾ 통해 중대 왕권이 공고해졌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바로 이 시기에 서동 설화의 신라적 변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자 한다.

IV. 마무리

신라 진평왕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 이데올로기의 완비를 통해 왕권을 안정시켰고, 이어지는 선덕여왕의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

82) 최근 보덕국에 대한 논의는 조법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金馬渚 배치와 報德國>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과 신은이,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 132, 2018 참조.

83) 《三國遺事》 卷2, 紀異2, 萬波息笛.

하면서 삼국 통합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진평왕이 백제 무왕과 사활을 건 전쟁을 수행하였고, 그를 이을 왕자를 얻지 못한 채 덕만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고뇌의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되지 못했다. 본고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시기에 특히 많이 남겨진 《삼국사기》 열전과 《삼국유사》 속의 인물 설화 기록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신라 진평왕 시기 백제와의 관계를 성왕 시기부터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서, 신라 진평왕과 백제 무왕 시기에 벌어진 역사의 충돌 상황과 설화 속의 화해를 키워드로 삼아 당시의 역사상을 다른 면에서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진평왕 시기의 신라는 왕권의 안정보다는 국가적 위기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음과 함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처절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점이 이후 신라가 당나라를 어떻게든 끌어들이어 삼국을 통합하려 했던 의지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필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동 설화에 다시 주목해보았다. 이전에 필자는 沙吒積德의 딸과 善花公主를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진실을 각각 지닌 자료로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모두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두 기록에는 모두 왕과 왕비(사택적덕의 딸 혹은 선화공주)가 함께 발원하여 가람을 조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역사와 설화 기록 사이의 모순은 이들을 시간의 병렬에 따라 나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事實과는 거리가 멀게 보일 수도 있는 서동 설화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人文學的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서동 설화가 신라의 백제 통합 이후에 백제인을 회유하기 위한 사상 통합의 일환으로, 신라의 입장에서 변용된 설화적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하였다. 신라 진평왕 시기에 백제

무왕과는 실제 역사적으로 치열한 충돌이 있었지만, 설화 속에서는 친밀한 관계였다고 화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용이 일어난 이유는 보덕국을 통한 고구려 통합책과 함께, 같은 익산을 배경으로 한 서동 설화를 통해 백제를 정신적으로 아우르고자 한 의도로 보았다. 그렇다면 서동 설화의 신라적 변용은 대략 문무왕~신문왕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설화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용된 상징 조작의 역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민중 속에 전승되면서 탈역사화된 역사, 집단 무의식이 작용한 심성의 역사로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설화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지만, 이는 잊혀져가는 역사, 소외된 역사에 대한 민중의 기억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이 구축되어 간다고도 볼 수 있다.⁸⁴⁾ 그렇다면 실제 전개된 역사적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화 속에 담겨진 인문학적 진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고대의 역사적 事實과 설화 속 眞實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백제·신라의 역사적 원수 관계와 설화 속 선화공주와 지명법사의 화해라는 꿈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역사학이 필요하다고 본다.

84) 김현자, 《신화, 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 책세상, 2004, 156~160쪽.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梁書》 《舊唐書》 《日本書紀》 《觀世音應驗記》 《釋迦譜》
 <王興寺址 舍利器 銘文> <彌勒寺址 西塔 舍利奉安記> <扶餘隆墓誌銘>

2. 저서

高翊晉, 《韓國古代 佛教思想史》, 동국대 출판부, 1989.
 고현아, 《신라 진흥왕계 왕실의 구축과 정치 이념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16.
 권영필,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두성북스, 2011.
 金福順, 《韓國 古代佛教史 研究》, 민족사, 2002.
 김덕원, 《新羅中古政治史研究》, 景仁文化社, 2007.
 김성구, 《백제의 와전 예술》, 주류성, 2004.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김재경, 《신라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民族社, 2007.
 김현자, 《신화, 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 책세상, 2004.
 李基白,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이정숙,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혜안, 2012.
 장경호, 《아름다운 백제건축》, 주류성, 2004.

3. 논문

Eliade, M., *Cosmos and History : The Myth of Eternal Return*(trans. Willard R. Trask, 1959) ; 鄭鎭弘譯, 《宇宙와 歷史-永遠回歸의 神話》, 現代思想社.
 姜英卿, <新羅 眞平王代 巫佛關係에 대한 一考察> 《淑大史論》 13, 1989.
 강종원, <백제 무왕의 대신라 강경책과 그 배경> 《百濟研究》 65, 2017.
 곽장근,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 2017.

- 길기태, <彌勒寺 創建의 信仰的 性格> 《韓國思想史學》 30, 2009.
-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 《韓國學論叢》 10, 1988.
- 김상현,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韓國史學報》 37, 2009.
- 김수태, <百濟 威德王의 정치와 외교> 《한국인물사연구》 2, 2004.
-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미륵사 서탑 사리 봉안> 《新羅史學報》 16, 2009.
-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관계> 《백제문화》 42, 2010.
- 金瑛河,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試論> 《泰東古典研究》 4, 1988.
- 金哲垞,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下)> 《歷史學報》 2, 1952.
- 南東信, <慈藏의 佛教思想과 佛教治國策> 《한국사연구》 76, 1992.
- 盧重國, <百濟 武王과 知命法師> 《韓國史研究》 107, 1999.
- 盧重國, <新羅와 百濟의 交渉과 交流> 《新羅文化》 17·18合, 2000.
- 李基白, <新羅 初期 佛教와 貴族勢力> 《震檀學報》 40, 1975.
- 李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 《韓國史研究》 52, 1986.
- 문경현, <진한의 철산과 신라의 강성> 《대구사학》 7·8合, 1973.
- 문경현, <백제 武王과 선화공주고> 《新羅史學報》 19, 2010.
- 박종욱, <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69, 2013.
- 신선혜, <신라 중고기 僧職의 설치와 僧團> 《佛敎研究》 46, 2017.
- 신은이,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 132, 2018.
- 신종원, <圓光과 眞平王代의 占察法會>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2, 1991.
- 안지원, <신라 眞平王代 帝釋信仰과 왕권> 《歷史敎育》 63, 1997.
- 양기석, <위덕왕의 즉위와 집권세력의 변화> 《사비도읍기의 백제(百濟文化史大系研究叢書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양정석, <彌勒寺址 塔址의 調查過程에 대한 檢討> 《韓國史學報》 36, 2009.
- 윤선태, <武王과 彌勒寺-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학술심포지엄 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이도학, <彌勒寺址 西塔 <舍利奉安記>의 分析> 《白山學報》 83, 2009.
- 李炳鎬, <경주 출토 백제계 기와 제작기술의 도입과정> 《韓國古代史研究》 69, 2013.
- 이장웅,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 38, 2012.

- 이장웅, <백제 法王의 정치와 불교>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 李晶淑, <眞平王代 王權強化와 帝釋信仰> 《新羅文化》 16, 1999.
- 전덕재, <椴岑城의 位置와 그 戰鬪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경계》 87, 2013.
- 정운용, <신라와의 관계> 《百濟의 對外交渉(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조경철, <백제 익산 彌勒寺 창건의 신앙적 배경~彌勒信仰과 法華信仰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32, 2009.
- 조법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金馬渚 배치와 報德國>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
- 朱甫噉, <新羅 中古의 地方統治組織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23, 1979.
- 朱甫噉,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중앙통치조직>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 崔鈞植, <6世紀 東아시아 地域의 佛敎擴散過程에 대한 再檢討> 《忠淸學과 忠淸文化》 13, 2011.

ABSTRACT

The Relationship with Baekje and the Story
of Seodong during the Reign of
King Jinpyeong of Silla
– The clash of History and The
Reconciliation of a Story –

Lee, Jang–woong

Regarding the period of King Jinpyeong of Silla, it was noted that the three kingdoms were united by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ideology and efforts to stabilize the authority of Queen Seondeok. However, this conclusion is based on the data left in the position of Silla, which unified the three kingdoms, and the data behind it may not be viewed as su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the Silla Dynasty and the three ancient kingdoms, this research focused on materials which were largely left behind in the background of this period like Samguksagi and Samgukyusa.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of Baekje and Silla, in the course of the reign of King Jinpyeong and King Mu of Baekje, and tried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time in different ways, using the clash between Silla and Baekje Kingdom and the reconciliation. As a result, Silla, who fought against King Mu of Baekje, felt a sense of national crisis rather than the

stability of the monarchy, and saw its determination to overcome it in times of pain. This may have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Silla's willingness to bring in the Tang and unify the three kingdoms.

In addition, as for the Seodong story, which had been analyzed a lot from the perspective of Baekje, he also noted what it was possible to read from Silla's point of view. The Seodong legend originally entered the Baekje kingdom by accepting Mahan's King Mughang's myth during the reign of King Mu of Baekje, but since Silla's integration, it has also been transformed from the position of Silla. This shows that during the period of King Jinpyeong of Silla, King Mu of Baekje was actually a series of fierce conflicts throughout history, but in the storyline, the relationship was very close.

Key Words : King Jinpyeong, King Mu, the Story of Seodong, Silla, Baekje, Amakseong Fortress, Gajamseong Fortress

논문 투고일 : 2018. 11. 12. 심사 완료일 : 2018. 11. 28. 게재 확정일 : 2018. 12. 17.